

# 한국, 일본, 대만 직접위성방송 정책결정자들의 스피로버(spillover) 인식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Q-방법론적 접근—

이상희\*\* · 강현두\*\* · 최 명\*\*\*

< 목 차 >	
I. 연구 개관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Q-조사에 이용된 진술문 카드의 예 4. 조사 대상자(경력, 연령, 성별, 학력) II. 조사결과 1. Q-요인분석의 결과 2. <자유방임형>의 특성 3. <균형교류형>의 특성	4. <기술중심형>의 특성 5. <자유방임형>과 <균형교류형>간의 차이 6. <자유방임형>과 <기술중심형>간의 차이 7. <균형교류형>과 <기술중심형>간의 차이 8. 유형간 일치를 본 항목 III. 결론 및 정책대안 부록: 조사에 사용된 의견 진술문

## I. 연구개관

###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제 2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켰으며 그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부각시켰다. 그중 오늘날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직접위성방송(direct broadcasting satellite)의 스피로버(spillover)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직접위성방송이란 적도상공의 정지 궤도상에 떠 있는 방송위성으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를 지상의 중계장치를 거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직접 개별수

\* 본 연구는 체신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91 통신학술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뉴미디어 정책 관련자들의 정보사회 인식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를 참고하라.

\*\* 서울대, 신문학

\*\*\* 서울대, 정치학

신 또는 공동수신할 수 있도록 한 방송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오늘날 미국, 유럽 및 일본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직접위성방송은 경제성, 난시청해소 및 대량통신 가능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간의 위성궤도 및 주파수 할당 문제와 스페일오버라는 심각한 국제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중 특히 스페일오버는 우주국에서 송출되는 직접위성방송의 전파가 국경을 넘어 타국가로 침입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스페일오버를 당하는 주변국들은 자신의 영토에 누출되는 타국의 전파에 대해 어떠한 통제력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국제적 마찰이 계속되어 왔다.

직접위성방송에 의한 스페일오버는 이질적 텔레비전 문화의 침입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텔레비전의 위력을 고려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텔레비전 전파의 침입은 곧 송신국 문화의 침입을 의미하며, 상업방송을 통한 상품광고의 침입은 경제상품의 수요창출을 조장하며 더 나아가 일방적인 정치선전의 도구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스페일오버의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일본의 텔레비전 전파가 우리의 안방에까지 스며 들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매개로 한 일본 직접위성방송이 일본열도를 넘어 한반도 구석구석까지 파고들고 있다. 일본직접위성방송은 1990년부터 일본 민간 방송들이 출자해서 만든 일본위성방송주식회사를 통해 상업 방송과 더불어 광고 방송도 이미 개시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상업방송문화와 더불어 일본 상품광고마저 아무런 통제 없이 우리의 안방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스페일오버가 단지 방송 차원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텔레비전의 스페일오버문제를 넘어 문화침투, 외국상품의 수요창출, 더 나아가 정치선전의 문제를 함축한다. 그리고 국가주권의 문제와 연결되며 국가의 자기 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차원까지 확대된다.

본 연구는 국제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 직접위성방송의 스페일오버가 갖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들을 둘러싼 국제간 갈등의 문제를 한국, 일본, 대만의 정책결정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실증적인 정책대안을 마

한국, 일본, 대만 직접위성방송 정책결정자들의 스페illover (Spillover) 205  
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조사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정책결정자들의 스페illover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뉴미디어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는 일본 그리고 우리와  
기술수준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만의 방송정책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위성방송의 스페illover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한 국제적인 비교  
연구(intercultural comparative studies)이다.

본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문헌연구(literature survey)를 통  
해 연구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문헌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에 쓰  
일 진술문을 아래의 주제에 따라 선정하였다. 진술문은 관련문헌에 대한 세  
밀한 검토를 거쳐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 <진술문의 내용>

첫째, 정보의 흐름과 대체기술에 대한 일반적 인식

둘째,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ver에 대한 인식

셋째, 국제기구에서의 스페illover 논쟁에 대한 인식

넷째, 스페illover의 국내대응에 대한 인식

다섯째, 직접위성방송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직접위성방송 정책결정자들(각 국가  
별로 5명씩)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위성방송에 대한 진술문(statements)을 분  
류하도록 하여 이들 인식의 심층구조를 Q-방법론을 활용하여 파악, 비교해  
보았다.

## 3. Q-조사에 이용된 진술문카드의 예

### <앞면> 진술문 기재

정보는 자유롭게 흘러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도 정보의 흐름을 규제할 수 없다.

### <뒷면> 일련 번호 기재

## 4. 조사대상자(경력, 연령, 성별, 학력)

방송 정책결정자는 한국 정책결정자 5명 일본 정책결정자 5명 대만 정책결정자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는 아래의 표 1-1에서와 같은 속성을 지닌 15명이다.

〈표 1-1〉 방송 정책결정자집단의 조사대상자

사 랑 명	경 력	연 령	성 별	학 력
일 본				
JOF1	30	54	남	학사
JOF2	40	63	남	학사
JOF3	20	60	남	학사
JOF4	40	60	남	학사
JOF5	03	31	남	박사
한 국				
KOF1	03	52	남	학사
KOF2	02	57	남	학사
KOF3	18	40	남	학사
KOF4	04	45	남	학사
KOF5	13	40	남	학사
대 만				
TOF1	01	35	여	석사
TOF2	08	40	남	석사
TOF3	10	38	남	박사
TOF4	12	41	남	석사
TOF5	01	30	남	석사

일본방송 정책결정자 중에는 1명만 박사학위소지자이고 나머지는 학사학위소지자이다. 한국방송 정책결정자는 전체가 학사학위소지자이다. 반면 대만방송 정책결정자중 4명은 석사학위소지자이고 1명은 박사학위소지자로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높은 편이다. 경력에 있어서는 일본의 방송 정책결정자들이 한국과 대만의 방송 정책결정자보다 비교적 많다는 것이 특성이며 연령도 대체적으로 그러하다.

## II. 조사결과

## 1. Q-요인분석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직접위성방송의 스피드오버에 대한 한국, 일본, 대만 방송정

책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42개의 스피로버에 관한 진술문을 강제분류방식으로 9개의 값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변량도(total variance)는 44.82%이었다. 그 중에서 첫째 요인의 변량도는 58.33%로 나타났고, 둘째 요인의 변량도는 24.95%이고 셋째 요인의 변량도는 16.71%이다. 따라서 첫째 요인이 지배적인 특성을 갖는 3요인 분석임을 알 수 있다. 본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재구성인자행렬표(re-ordered factor matrix)를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해보겠다.

<표 2-1> 방송 정책결정자의 재구성요인표

요인명	경력	연령	성별	학력	자 방 입 형	균 형 호 름 형	기 중 심 형	COM	PURE
J OF3	20	60	남	학사	.803	-.006	.061	.648	.994
J OF2	40	63	남	학사	.752	-.091	.173	.604	.937
J OF4	40	60	남	학사	.541	.225	.083	.351	.836
J OF1	30	54	남	학사	.651	.266	.157	.519	.816
TOF3	10	38	남	박사	-.124	.620	.210	.444	.866
KOF3	18	40	남	학사	.039	.474	.273	.300	.747
TOF1	01	35	여	석사	.039	.437	.273	.267	.715
TOF5	01	30	남	석사	.472	.604	-.017	.588	.620
J OF5	03	31	남	박사	.461	.573	-.072	.546	.601
TOF4	12	41	남	석사	.273	.359	.287	.286	.452
KOF5	13	40	남	학사	.106	.165	.735	.578	.934
KOF1	03	52	남	학사	-.068	.166	.587	.377	.915
KOF2	02	57	남	학사	.297	-.062	.720	.610	.849
TOF2	08	40	남	석사	.112	.114	.285	.107	.761
KOF4	04	45	남	학사	.136	.359	.591	.497	.703
변량/요인 누적					.1727 .1727	.1302 .3029	.1453 .4482	.4482	

Q-분석에서는 각각의 요인을 이론적 유형(theoretical type)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3개의 이론적 유형이 있는 셈이다. 이를 우선적으로 유형 1, 유형 2, 유형 3이라고 부르겠다.

유형 1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명이 모두 일본경제결정자이다. 유형 2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대만정책결정자가 4명이며 일본정책결정자와 한국정책결정자가 각각 1명이다. 유형 2에 3명 일본정책결정자는 일본

정책결정자중에서 가장 경력이 적고 나이가 젊은 사람이며 한국정책결정자는 가장 경력이 많다는 특성을 갖는다. 유형 3은 5명으로 나타나는데 한국 정책결정자가 4명으로 제일 많고 대만정책결정자가 한명이다. 이러한 유형상 특성을 종합해보면 3개 국가의 방송 정책결정자는 국가별로 직접위성방송에 대해 뚜렷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에 있어 국가적 특성은 직접위성방송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는 가장 지배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별 특성은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이들 유형의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다. 유형 1은 일본 방송 정책결정자들이 중심이 된 <자유방임형>으로, 유형 2는 대만 방송정책결정자들이 중심이 된 <균형교류형>, 유형 3은 한국 방송 정책결정자들이 중심이 된 <기술중심형>이라고 이름지을 수 있겠다.

## 2. <자유방임형>의 특성

<자유방임형>에서 가장 적재량(factor loading)이 높은 진술문은, 즉 진술문에 대해 강력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은 (Z값의 크기가 +1.2보다 크거나 -1.2보다 작은 경우), 전체 42개의 진술문 가운데 10개이다. 이중에 강력하게 동의하는 진술문은 5개이다. 강력하게 반대하는 진술문도 5개이다.

<자유방임형>이 가장 강력하게 동의하는 진술문은 진술문 34 “직접위성방송은 국민들의 시청범위와 시청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발전시켜야 한다”로 Z값은 2.25이다. 그 다음으로는 진술문 7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국가간의 거리를 축소시켜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문화교류를 만들어 낸다”

<표 2-2> <자유방임형>이 강력히 동의하는 의견진술문

진술문 번호	진술문 내용	Z 값
34	직접위성방송은 국민들의 시청범위와 시청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2.25
7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국가간의 거리를 축소시켜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문화교류를 만들어 낸다.	1.54
20	국가간의 직접위성방송에 관한 사전동의 원칙은 방송될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사전검열(censorship)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32
2	국가간의 정보 흐름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간 균형이 잡혀야 한다.	1.26
12	직접위성방송은 세계적으로 실용화된 뉴미디어 체제로서 이를 수용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1.23

낸다”로 Z값은 1.54이다. 이 두개의 진술문은 모두 직접위성방송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는 진술문 20 “국가간의 직접위성방송에 관한 사전등의 원칙은 방송될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사전검열(censorship)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진술문 2 “국가간의 정보 흐름은 일방적이지 않고 균형이 잡혀야 한다”, 진술문 12 “직접위성방송은 세계적으로 실용화된 뉴미디어 체제로서 이를 수용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등이 이어진다. <자유방임형>에서 동의하는 진술문은 직접위성방송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과(진술문 34, 12)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낙관적 인식(진술문 7)을 나타낸다. 진술문 20은 위성을 가진 일본측이 자국의 위성방송에 대해 어떤 간섭이라도 받기 싫다는 인식을 잘 나타낸다.

<표 2-3> <자유방임형>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진술문

진술문 번호	진술문 내용	Z값
19	모든 국가는 외국 직접위성방송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국 영토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문제되는 위성을 파괴할 수 있다.	-2.45
18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발사국은 전파수신가능국가와 사전동의(prior consent)를 얻을 필요가 있다.	-1.77
21	직접위성방송 실시국가는 즉시 전파수신가능국에 그러한 의도를 통지하고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성방송업무에 관련된 협의에 들어 가야 한다.	-1.60
31	외국의 직접위성방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채널을 더욱 강화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1.42
22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버는 수신가능국이 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1.25

<자유방임형>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진술문은 진술문 19 “모든 국가는 외국 직접위성방송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국 영토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문제되는 위성을 파괴할 수 있다”(Z값=-2.45)이다. 이어서 진술문 18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발사국은 전파수신가능국가와 사전동의(prior consent)를 얻을 필요가 있다”, 진술문 21 “직접위성방송 실시국가는 즉시 전파수신가능국에 그러한 의도를 통지하고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성방송업무에 관련된 협의에 들어 가야 한다” 등이 이어진다.

위와 같은 진술문의 내용은 위성을 운용하는 국가인 일본의 방송 정책결정자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즉 스페illo버 영향을 받는 나라가 사전

에 위성방송의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반대하고(진술문 22), 따라서 직접위성방송의 스페르버 현상에 대한 사전동의와 사전협의도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진술문 18, 19) 것이다. 그리고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외국 직접위성방송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 무력으로 위성을 파괴하는 방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직접위성방송의 대응방안으로서 공영방송체제의 강화에 대해서도 반대의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자유방임형>이 직접위성방송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스페르버 문제의 규제적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인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 3. <균형교류형>의 특성

<균형교류형>에서 가장 적재량(factor loading)이 높은 진술문은, 즉 <균형교류형>이 직접위성방송의 스페르버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Z값의 크기가 +1.2보다 크거나 -1.2보다 작은 경우)은, 전체 42개 진술문 가운데 9개이다. 이 가운데 제일 강력하게 동의하는 진술문이 진술문 2(Z값=2.24)이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진술문이 진술문 19(Z값=-2.08)이다. 이 집단의 총 6명중에 대만정책결정자가 4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정책결정자가 각각 한명이 있다.

<표 2-4> <균형교류형>이 강력히 동의하는 의견진술문

진술문 번호	진술문 내용	Z 값
2	국가간의 정보 흐름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간 균형이 잡혀야 한다.	2.24
9	직접위성의 내용은 그 방송을 송출하는 민족의 사상, 이념, 가치 즉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1.93

이중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진술문 2 “국가간의 정보 흐름은 일방적이지 않고 균형이 잡혀야 한다”이다. 그 다음으로는 진술문 9 “직접위성의 내용은 그 방송을 송출하는 민족의 사상, 이념, 가치 즉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한다”(Z값=1.93)이다. 이것은 대만 방송 정책결정자들이 일본 위성방송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국문화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중 <균형교류형>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진술문 19 “모든 국가는 외국 직접위성방송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국 영토 뿐 아니라 의제에서도 문제되는 위성을 파괴할 수 있다”이다. 이것은 다른 정책결

〈표 2-5〉 〈균형교류형〉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진술문

진술문 번호	진술문 내용	Z 값
19	모든 국가는 외국 직접위성방송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 국 영토 뿐 아니라 외계에서도 문제되는 위성을 파괴할 수 있다.	-2.08
27	폭넓은 국제정보와 문화의 동향을 알기 위하여 스피로버현상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78
29	스피로버 문제는 당사국 국민이 안보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1.76
4	“정보자유”라는 주장은 결국 정보수집, 처리능력이 있는 정보부국 (information rich countries)의 지배논리로서 정보빈국(inform- ation poor countries)에게는 공허한 이야기다.	-1.41
16	직접위성방송의 스피로버는 해당 방송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1.36
41	직접위성방송은 수신료수입으로 운영되는 것 보다 광고료로 운영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1.32
14	직접위성방송의 스피로버는 외래문화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민족적 증오와 반목을 조장시킬 수 있는 위협이 있다.	-1.25

정자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진술문 27 “폭넓은 국제정보와 문화의 동향을 알기 위하여 스피로버현상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Z값=-1.78), 진술문 29 “스피로버 문제는 당사국 국민이 안 보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Z값=-1.76), 진술문 4 “정보자유라는 주장은 결국 정보수집, 처리능력이 있는 정보부국(information rich countries)의 지배논리로서 정보빈국(information poor countries)에게는 공허한 이야기다”(Z값=-1.41)로 이어진다.

〈균형교류형〉은 진술문 16, 27, 29에서 직접위성방송의 스피로버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출했다. 그러나 진술문 4에서는 〈균형교류형〉의 국제정보 질서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균형교류형〉이 인식하기에 자기나라가 절대적인 정보빈국이 아니며 국제간 정보유통에 있어서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한편 진술문 14의 인식에서는 스피로버가 민족적 증오나 반목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국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이들은 적극적으로 균형된 흐름을 갖도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피로버는 이러한 균형흐름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4. 〈기술중심형〉의 특성

〈기술중심형〉에서 가장 적재량(factor loading)이 높은 진술문은, 즉 〈기술

중심형)이 스펠오버 문제에 강력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Z값의 크기가 +1.2보다 크거나 -1.2보다 작은 경우)은, 전체 42개의 진술문 가운데 12개이다. 이 가운데 강력하게 동의하는 진술문은 4개이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진술문은 8개이다. 이 유형의 성원은 전부 5명이고 그 중에 한국 정책결정자가 4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한명이 대만정책결정자이다.

〈표 2-6〉 <기술중심형>이 강력히 동의하는 의견진술문

진술문 번호	진술문 내용	Z 값
35	직접위성방송 기술은 HDTV, PCM방송등의 뉴미디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1.85
39	직접위성방송은 국가의 전자통신 및 여타 산업에 긍정적인 기술적 파급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가의 첨단산업개발에 도움을 준다.	1.62
38	직접위성방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독립제작사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38
32	직접위성방송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은 DBS와 CATV의 지역연계를 통해 채널의 다양화를 달성함으로써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1.36

<기술중심형>이 가장 강력하게 동의하는 진술문은 진술문 35 “직접위성방송 기술은 HDTV, PCM방송 등의 뉴미디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Z값=1.85)이다. 그 다음으로는 진술문 39 “직접위성방송은 국가의 전자통신 및 여타 산업에 긍정적인 기술적 파급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가의 첨단산업개발에 도움을 준다”(Z값=1.62), 진술문 38 “직접위성방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독립제작사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Z값=1.38), 진술문 32 “직접위성방송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은 DBS와 CATV의 지역연계를 통해 채널의 다양화를 달성함으로써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Z값=1.36)로 이어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중심형>이 관심을 갖는 것은 주로 직접위성방송의 효율적인 발전과 직접위성방송이 뉴미디어 산업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갖는다는 측면(진술문 32, 35, 39)이다. 그리고 진술문 35에 동의 하는 것은 일본의 HDTV방식(위성방송을 통한 고품질 텔레비전방식으로 미국이나 유럽은 각기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중심형>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진술문은 진술문 19 “모든 국가는 외국 직접위성방송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국 영토 뿐 아니

〈표 2-7〉 〈기술중심형〉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진술문

진술문 번호	진술문 내용	Z값
19	모든 국가는 외국 직접위성방송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국 영토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문제되는 위성을 파괴할 수 있다.	-1.85
3	한 나라에서 외국문화가 영향을 갖는 이유는 결국 그 나라의 사람이 자국문화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75
29	스펠오버 문제는 당사국 국민이 안보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1.70
17	직접위성방송의 스펠오버는 전파의 특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국제적으로 문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63
26	위성방송전파의 출력을 제안하는 현존하는 국제통신연맹의 기술적 규제 조치(인근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파의 최대수신전파 강도를 $-103 \text{ dBW/m}^2$ 로 제안하는 조치)는 비합법적인 방송위성 전송에 대한 충분한 방어조치의 역할을 담당한다.	-1.28
6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실제에 있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만 독점되어 국제간 경제, 기술적 격차만을 더 벌려놓았다.	-1.23
16	직접위성방송의 스펠오버는 해당 방송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1.22
8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국제적, 국내적인 정보의 지역적, 계층적인 불균형을 더욱 강화시킨다.	-1.20

라 의제에서 문제되는 위성을 파괴할 수 있다”(Z값=-1.85)이다. 이것은 〈자유방입형〉, 〈균형교류형〉의 인식과 같다. 즉 3개의 요인 모두는 무력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의 위성을 파괴하는 일에 반대한다.

이어서 진술문 3 “한 나라에서 외국문화가 영향력을 갖는 이유는 결국 그 나라의 사람이 자국문화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Z값=-1.75), 진술문 29 “스펠오버 문제는 당사국 국민이 안 보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Z값=-1.70), 진술문 17 “직접위성방송의 스펠오버는 전파의 특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국제적으로 문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Z값=-1.63) 등이 이어진다.

〈기술중심형〉은 한 나라에서 외국문화가 영향력을 갖는 이유가 단지 자국 문화에 대해 불만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며(진술문 3) 스펠오버가 전파수신가능국가의 내부문제가 아니며(진술문 29) 스펠오버가 언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인식한다(진술문 16). 그리고 직접위성방송의 스펠오버가 아주 중요한 국제적 이슈라고 인식한다(진술문 17). 한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 〈기술중심형〉은 낙관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뉴 미디어 기술이 국가간의 불균형을 확대하고 계층간의 격차만을 강화하는 역기능만 지닌다는 인식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진

술문 6, 8). 이러한 면은 <기술중심형>이 대부분 한국 방송 정책결정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즉 한국에서 직접위성방송 발사를 2~3년 앞둔 현 시점에서 위성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현실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 5. <자유방입형>과 <균형교류형>간의 차이

<표 2-8> <자유방입형>이 동의하고 <균형교류형>이 반대하는 차이

진술문 번호	진술문 내용	<자유방입형>	<균형교류형>	차이
34	직접위성방송은 국민들의 시청범위와 시청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2.252	-.056	2.309
13	직접위성방송의 스피오버는 외국 텔레비전의 문화적 침투를 초래한다.	.960	-.562	1.522

<자유방입형>에서 동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균형교류형>에서 반대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차이를 보이는 진술문은 진술문 34, 13등이다.

이들 진술문에 대한 두 집단의 태도는 위성소유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자유방입형>에서는 진술문 34 “직접위성방송은 국민들의 시청범위와 시청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Z값 2.252)에 강한 동의인식을 갖는 반면 <균형교류형>은 반대 인식을 보여줌으로서 (Z값이 -0.056) Z값의 차이가 2.309를 기록한다.

한편 진술 13 “직접위성방송의 스피오버는 외국 텔레비전의 문화적 침투를 초래한다”에 대하여 <자유방입형>은 동의하고 <균형교류형>이 반대함으로써 차이가 1.522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유방입형>이 스피오버의 해당당사국으로서 스피오버가 문화침투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많은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균형교류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은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유방입형>은 진술문 34의 인식에서와 같이 직접위성방송 기술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자유방입형>이 반대하고 <균형교류형>이 찬성해서 Z값의 차이가 큰 것은 진술문 21 “직접위성방송 실시국가는 즉시 전파수신가능국에 그러한 의도를 통지하고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성방송 업무에 관련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Z값의 차이가 -2.548)와 진술문 18 “직접위성방송의 스피오버

〈표 2-9〉 〈자유방임형〉이 반대하고 〈균형교류형〉이 동의하는 차이

진술문 번호	진술문 내용	〈자유방임형〉	〈균형교류형〉	차이
21	직접위성방송 실시국가는 즉시 전파수신가능국에 그러한 의도를 통지하고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성방송 업무에 관련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1.598	.950	-2.548
18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ve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발사국은 전파수신가능국가와 사전동의 (prior consent)를 얻을 필요가 있다.	-1.770	.408	-2.178
22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ver는 수신가능국이 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1.246	.858	-2.104
24	직접위성방송에 따라 스페illover가 나타나면 그 해당사자들 전체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들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667	1.114	-1.781
8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국제적, 국내적 인 정보의 지역적, 계층적인 불균형을 더욱 강화시킨다.	-.692	1.073	-1.76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발사국은 전파수신가능국과 사전동의 (prior consent)를 얻을 필요가 있다.”(Z값의 차이가 -2.178)이다. 위와 같은 유형간의 문제인식의 차이를 종합해보면 〈자유방임형〉과 〈균형교류형〉는 특히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ver의 규제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유방임형〉은 스페illover문제에 대한 주변국과의 사전동의 및 사전 협의에 극단적인 반대인식을 보이거나 〈균형교류형〉는 이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긍정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균형교류형〉는 스페illover에 관한 지역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인식을 보인다. 이것은 위성방송을 실제로 운영하는 국가인 일본과 위성방송의 전파수신가능국인 대만간의 모순이기도 하다.

### 6. 〈자유방임형〉과 〈기술중심형〉간의 차이

〈자유방임형〉이 찬성하고 〈기술중심형〉이 반대해서 차이를 보이는 진술문들 가운데 Z값의 차이가 큰 것은 진술문 34 “직접위성방송은 국민들의 시청범위와 시청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Z값의 차이가 2.198), 진술문 20 “국가간의 직접위성방송에 관한 사전동의 원칙은 방송될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사전검열 (censorship)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Z값의 차이가 2.062), 진술문 1 “정보는 자유롭게 흘러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보의 흐름을 규제할 수 없다”(Z값의 차이가 2.007) 등으로 이어진다.

〈표 2-10〉〈자유방임형〉이 동의하고 〈기술중심형〉이 반대하는 차이

진술문 번호	진술문 내용	〈자유 방임형〉	〈기술 중심형〉	차이
34	직접위성방송은 국민들의 시청범위와 시청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2.252	.054	2.198
20	극가간의 직접위성방송에 관한 사전동의 원칙은 방송위원회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317	-.745	2.062
1	정보는 자유롭게 흘러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보의 흐름을 규제할 수 없다.	1.095	-.913	2.007
26	위성방송의 출력을 제한하는 현존하는 국제통신연맹의 기술적규제 조치(인접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파의 최대수신전파강도를 $-103\text{dBW}/\text{m}^2$ 로 제한하는 조치)는 비합법적인 방송위성 전송에 대한 충분한 방어조치의 역할을 담당한다.	.692	-1.285	1.977
3	한 나라에서 외국문화가 영향을 갖는 이유는 결국 그 나라의 사람이 자국문화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042	-1.750	1.708
17	직접위성방송의 스필오버는 전파의 특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국제적으로 문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92	-1.634	1.542

결국 〈자유방임형〉은 표현자유 침해라는 명분을 내세워 스필오버 프로그램내용의 사전검열에 적극 반대하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중심형〉은 이와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자유방임형〉은 직접위성방송이 국민들의 시청의 질을

〈표 2-11〉〈자유방임형〉이 반대하고 〈기술중심형〉이 동의하는 차이

진술문 번호	진술문 내용	〈자유 방임형〉	〈기술 중심형〉	차이
18	직접위성방송의 스필오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발사국은 전파수신가능국가와 사전동의(prior consent)를 얻을 필요가 있다.	-1.770	.808	-2.578
22	직접위성방송의 스필오버는 수신가능국이 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1.246	1.096	-2.342
31	외국의 직접위성방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채널을 더욱 강화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1.422	.566	-1.988
21	직접위성방송 실시국가는 즉시 전파수신가능국에 그러한 의지를 통지하고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성방송업무에 관련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1.598	.222	-1.820
35	직접위성방송 기술은 HDTV, PCM방송 등의 뉴미디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22	1.846	-1.623
38	직접위성방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독립제작사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34	1.376	-1.511

향상한다는 인식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반면 <기술중심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진술문에 대한 두 유형간의 차이에서 위성방송을 실시하는 국가와 위성방송의 영향을 받은 국가간의 의견차를 밝힐 수 있다. 특히 진술문 18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ve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발사국은 전파수신 가능국과 사전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자유방입형>의 Z 값이 -1.770, <기술중심형>의 Z 값이 .808를 나타냄으로써 Z 값의 차이가 -2.258을 나타낸다. 그리고 진술문 22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ver는 수신가능국이 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자유방입형>의 Z 값이 -1.246, <기술중심형>의 Z 값이 1.096을 나타냄으로써 Z 값의 차이가 -2.342를 나타낸다.

결국 <자유방입형>과 <기술중심형>은 위성의 보유 여부에 따라 위성의 스페illover 영향과 스페illover에 의해 일어나게 된 문제에 대해 많은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즉 <자유방입형>은 스페illover에 관련된 국가간의 사전 동의에 반대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주변국의 관여를 반대하고 있으나 <기술중심형>에서는 이에 대해 동의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반면 <기술중심형>은 직접위성방송이 뉴미디어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이 직접위성방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선행될 것이라는 인식에 동의함으로써 기술발전가능성에 대한 강한 희망을 표시하고 있다.

#### 7. <균형교류형>과 <기술중심형>간의 차이

<균형교류형>과 <기술중심형>은 위성방송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 많은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균형교류형>은 강력하게 동의하고 <기술중심형>은 강력하게 반대해서 차이를 보이는 진술문들은 진술문 8, 25, 3, 9, 1, 2 등이다. 이 중에는 진술문 8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국제적, 국내적인 정보의 지역적, 계층적인 불균형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균형교류형>의 Z 값이 1.073, <기술중심형>의 Z 값이 -1.195를 나타냄으로써 Z 값의 차이가 2.268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진술문 25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ver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허가없는 무단시청행위가 됨으로써 지적소유권 침해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균형교류형>의 Z 값이 .941, <기술중심형>

〈표 2-12〉 〈균형교류형〉가 동의하고 〈기술중심형〉이 반대하는 차이

진술문 번호	진술문 내용	〈균형 교류형〉	〈기술 중심형〉	차이
8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국제적, 국내적인 정보의 지역적, 계층적인 불균형을 더욱 강화시킨다.	1.073	-1.195	2.268
25	직접 위성방송의 스펙오버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허가없는 무단시청행위가 필요로써 지적소유권 침해현상을 낳을 수 있다.	.941	-1.104	2.044
3	한 나라에서 외국문화가 영향력을 갖는 이유는 결국 그 나라의 사람이 자국문화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048	-1.750	1.799
9	직접 위성방송의 내용은 그 방송을 송출하는 민족의 사상, 이념, 가치 즉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1.934	.158	1.777
1	정보는 자유롭게 흘러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보의 흐름을 규제할 수 없다.	.850	-.913	1.763
2	국가간의 정보 흐름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간의 균형이 잡혀야 한다.	2.243	.599	1.645

의 Z 값이 -1.104를 나타남으로써 Z 값의 차이가 2.004이다.

결국 〈균형교류형〉은 비판적 기술론을 수용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계층적 불균형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고 있으며 스펙오버가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 반면 〈기술중심형〉은 비판적 기술론을 수용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을 신뢰하고 있으나 스펙오버가 지적소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갖는다는 인식에 반대한다. 그리고 외국문화의 영향이 자국문화의 불만족에 기

〈표 2-13〉 〈균형교류형〉이 반대하고 〈기술중심형〉이 동의하는 차이

진술문 번호	진술문 내용	〈균형 교류형〉	〈기술 중심형〉	차이
35	직접 위성방송 기술은 HDTV, PCM방송 등의 뉴미디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560	1.846	-2.405
31	외국의 직접 위성방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영 방송채널을 더욱 강화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1.083	.566	-1.649
39	직접 위성방송은 국가의 전자통신 및 여타 산업에 긍정적인 기술적 파급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가의 첨단산업개발에 도움을 준다.	-.001	1.618	-1.619
4	“정보자유”라는 주장은 결국 정보수집, 처리능력이 있는 정보부국(information rich countries)의 지배논리로서 정보빈국(information poor countries)에게는 공허한 이야기다.	-1.414	.198	-1.612
13	직접 위성방송의 스펙오버는 외국 텔레비전의 문화적 침투를 초래한다.	-.562	.946	-1.507

인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를 보이고 있다.

〈균형교류형〉은 반대하고 〈기술중심형〉이 동의해서 차이가 나온 진술문은 진술문 35, 31, 39, 4, 13, 5 등이다. 그 중에서는 차이의 정도가 제일 큰 것이 진술문 35 “직접위성방송 기술은 HDTV, PCM 방송 등의 뉴미디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로서 〈균형교류형〉의 Z 값이  $-1.560$ , 〈기술중심형〉의 Z 값이  $1.846$ 를 나타내서 Z 값의 차이가  $2.405$ 이다.

그 다음으로는 진술문 31 “외국의 직접위성방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채널을 더욱 강화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는 〈균형교류형〉의 Z 값이  $-1.083$ , 〈기술중심형〉의 Z 값이  $.566$ 를 나타냄으로써 Z 값의 차이가  $1.649$ 이다. 이들 〈균형교류형〉과 〈기술중심형〉의 차이는 같은 위성방송수신가능국의 입장에 있는 대만과 한국 두 나라 방송 정책결정자의 인식차를 나타낸다. 결국 〈균형교류형〉은 정보자유가 정보부국의 지배논리에 불과하다는 인식과 스페illover가 문화침투를 초래한다는 인식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기술중심형〉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한편 〈기술중심형〉은 직접위성방송이 첨단산업개발에 도움을 주며 뉴미디어의 정착에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반면 〈균형교류형〉은 반대하고 있다.

### 8. 유형간 일치를 본 항목

〈자유방임형〉, 〈균형교류형〉과 〈기술중심형〉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몇몇 부분에서 합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합의는 반대의 합의와 동의의 합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4〉 방송 정책결정자가 동의경향에 일치를 보인 진술문

진술문 번호	진술문 내용	Z 값
7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국가간의 거리를 축소시켜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문화교류를 만들어 낸다.	1.17
12	직접위성방송은 세계적으로 실용화된 뉴미디어 체제로서 이를 수용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85
23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ver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성발사국은 기술적인 노력을 사전에 꼭 기울여야 한다.	.68
36	직접위성방송의 확충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여타 문화제작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64
10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ver는 결과적으로 국가나 민족간 문화, 스포츠 및 교육교류의 증대를 가져와 이들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43
37	직접위성방송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자본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02

동의에 함의를 본 진술문들은 새로운 뉴미디어인 직접위성방송의 도래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내용들이다. 동의경향에 일치의 강도가 제일 높은 것은 진술문 7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국가간의 거리를 축소시켜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문화교류를 만들어 낸다”로서 Z 값이 1.17이다. 그 다음 동의의 일치도가 높은 것이 진술문 12 “직접위성방송은 세계적으로 실용화된 뉴미디어 체제로서 이를 수용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로서 Z 값이 .85이다. 그 다음은 진술문 23 “직접위성방송의 스펙오버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성발사국은 기술적인 노력을 사전에 꼭 기울여야 한다”로서 스펙오버를 줄이기 위해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표 2-15〉 방송 정책결정자가 반대경향에 일치를 보인 진술문

진술문 번	진술문 내용	Z 값
19	모든 국가는 외국 직접위성방송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국 영토 뿐 아니라 외계에서도 문제되는 위성을 파괴할 수 있다.	-2.12
29	스펙오버 문제는 당사국 국민이 안보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1.41
14	직접위성방송의 스펙오버는 외래문화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민족적 증오와 반목을 조장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0.91
41	직접위성방송은 수신료수입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광고료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81
28	직접위성방송의 스펙오버는 인근국가의 긍정적 사회문화 측면을 수용함으로써 자국의 사회문화발전에 도움을 준다.	-0.65
42	직접위성방송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요구됨으로써 개별국가가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위성의 지역간 공동위성 개발 및 이용이 더욱 절실하다.	-0.39

반대경향의 일치를 보이는 것은 진술문 19, 29, 14, 41, 28, 42이다. 그 중에서 세계의 유형 모두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진술문 19 “모든 국가는 외국 직접위성방송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국 영토 뿐 아니라 외계에서도 문제되는 위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로서 Z 값이 2.12이다. 그 다음에는 진술문 29 “스펙오버 문제는 당사국 국민이 안보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로서 Z 값이 1.41이다. 이는 방송 정책결정자의 대부분이 스펙오버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인식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이를 극단적인 조치(위성의 파괴)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Ⅲ. 결론 및 정책대안

〈자유방입형〉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바탕으로 직접 위성방송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자국의 위성방송운영에 어떠한 주변국의 간섭도 받기 싫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스피로버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국간의 사전동의와 사전협의도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의 간섭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부정하고 있다. 이 유형은 정보의 흐름은 자유로워야 하고 그것은 한국내 일본 직접위성방송 수신자의 정보접근권을 위해서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철저한 ‘정보자유론자’인 셈이다.

일본정책결정자와 스피로버에 관해 실질적인 협상을 벌여야 할 한국정책결정자로서는 정보주권론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스피로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제회의에서 논의되어온 스피로버에 관한 해당 당사국간의 사전협의 권고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스피로버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여 국제적인 교섭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균형교류형〉은 스피로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출했다는 면에서 〈기술중심형〉과 동일한 인식을 갖으나 현재의 국제정보질서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기술중심형〉과 상이한 인식을 갖는다. 이는 대만이 현존 국제정보질서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직접위성방송의 상업주의적 운용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 방송 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한 〈균형교류형〉의 인식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국제정보질서를 변화의 대상으로서 보다는 경제 성장을 위한 능동적 수용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기술중심형〉은 외국문화의 범람이 초래하는 부정적 문제와 스피로버가 갖는 심각한 문제에 동의하고 있는 인식에 있어서는 〈균형교류형〉과 같지만 직접위성방송의 효율적인 발전가능성과 직접위성방송의 뉴미디어 산업에 대한 긍정적 영향 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유방입형〉과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중심형〉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국가간의 불균형을 확대하고

계층간의 격차만을 벌려놓는다는 비판적 인식에 반대한다.

결론적으로 <기술중심형>은 한편으로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스피오버에 대한 비판적 문제인식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직접위성방송 발사를 2~3년 앞둔 현 시점에서 위성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입각하여 직접위성방송을 긍정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인식 또한 갖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중심형>은 스피오버의 피해자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직접위성방송의 발사와 이에 따른 전파수신가능국가와의 스피오버 협의문제에 대한 현실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내의 방송 정책결정자들은 우선적으로 일본직접위성방송의 스피오버를 둘러싼 협상의 상대역으로서 일본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들이 직접적으로 일본 현지 조사과정에서 일본 정책결정자들을 면담한 결과 얻어진 일본 정책결정자들의 공통된 인식을 몇가지로 요약하고 이의 대응논리를 마련해보자.

첫째, 일본정책결정자들은 BS-3a 위성이 본궤도에 오른 뒤 방송전파의 빔 패턴이 과거와는 달리 일본열도에 집중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스피오버는 기술적으로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일본정책결정자들은 한국에서 일본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전적으로 한국내의 시청자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일본정책결정자들은 방송내용에 있어서 외국의 정보 프로그램은 전혀 일본에서 침삭하지 않으므로 일본의 가치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교양프로그램은 일본 국내 NHK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일본정책결정자들의 논리는 철저히 '정보자유론'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정보주권론'과 '균형잡힌 정보의 흐름론'에 입각하여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스피오버가 의도적이 아니며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방송전파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온다는 것은 한국가의 정보주권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방송 프로그램이 내용의 침삭이 없는 해외정보의 단순한 전달

이지만 전체적으로 서방세계의 가치관과 입장만이 전달된다는 면에서 여전히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세계, 스피로버의 문제는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보통제의 권리가 없이 외래의 방송이 전달됨으로써 야기되는 정보주권의 침해라는 측면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네째, 일본 직접위성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은 장기적으로 일본식 생활패턴의 수용을 가져옴으로써 생활용품을 시작으로 경제상품의 침입 등 시장침투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 부록 : 조사진술문의 내용

#### 정보의 흐름과 매체기술에 대한 일반인식

1. 정보는 자유롭게 흘러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보의 흐름을 규제할 수 없다.
2. 국가간의 정보 흐름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간 균형이 잡혀야 한다.
3. 한 나라에서 외국문화가 영향을 갖는 이유는 결국 그 나라의 사람이 자국문화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정보자유”라는 주장은 결국 정보수집, 처리능력이 있는 정보부국(information rich countries)의 지배논리로서 정보빈국(information poor countries)에게는 공허한 이야기다.
5.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혁명적 사회 변화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해준다.
6.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실제에 있어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만 독점되어 국제간 경제, 기술적 격차만을 더 벌려놓았다.
7.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국가간의 거리를 축소시켜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문화교류를 만들어 낸다.
8.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국제적, 국내적인 정보의 지역적, 계층적인 불균형을 더욱 강화시킨다.

### 직접위성방송의 스피로버에 관한 인식

9. 직접위성방송의 내용은 그 방송을 송출하는 민족의 사상, 이념, 가치 즉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10. 직접위성방송의 스피로버는 결과적으로 국가나 민족간 문화, 스포츠 및 교육교류의 증대를 가져와 이들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11. 직접위성방송의 스피로버는 상업광고를 통해서 소비생활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
12. 직접위성방송은 세계적으로 실용화된 뉴미디어 체제로서 이를 수용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13. 직접위성방송의 스피로버는 외국 텔레비전의 문화적 침투를 초래한다.
14. 직접위성방송의 스피로버는 외래문화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민족적 증오와 반목을 조장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15. 직접위성방송의 스피로버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국민들의 시야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16. 직접위성방송의 스피로버는 해당 방송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17. 직접위성방송의 스피로버는 전파의 특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국제적으로 문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국제기구에서의 스피로버 논쟁에 대한 인식

18. 직접위성방송의 스피로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발사국은 전파수신가능국가와 사전동의(prior consent)를 얻을 필요가 있다.
19. 모든 국가는 외국의 직접위성방송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국 영토 뿐 아니라 의제에서도 문제되는 위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
20. 국가간의 직접위성방송에 관한 사전동의 원칙은 방송될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사전검열(censorship)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1. 직접위성방송 실시국가는 즉시 전파수신가능국에 그러한 의도를 통지하고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성방송 업무에 관련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22.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버는 수신가능국이 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23.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버를 줄이기 위해서 위성발사국은 기술적인 노력을 사전에 꼭 기울여야 한다.
24. 직접위성방송에 따라 스페illo버가 나타나면 그 해당 당사자들 전체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들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25.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버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텔레비전프로그램의 허가없는 무단시청행위가 됨으로써 지적소유권 침해현상을 낳을 수 있다.
26. 위성방송전파의 출력을 제한하는 현존하는 국제통신연맹의 기술적 규제 조치(인접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파의 최대수신전파 강도를  $-103$  dBW/m<sup>2</sup>로 제한하는 조치)는 비합법적인 방송위성 전송에 대한 충분한 방어조치의 역할을 담당한다.
27. 폭넓은 국제정보와 문화의 동향을 알기 위하여 스페illo버현상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스페illo버의 국내대응에 대한 인식

28.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버는 인근 국가의 긍정적 사회문화측면을 수용함으로써 자국의 사회문화발전에 도움을 준다.
29. 스페illo버 문제는 당사국 국민이 안보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30.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파수신가능국은 그들 자신의 방송의 질을 높여야 한다.
31. 외국의 직접위성방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채널을 더욱 강화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32. 직접위성방송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은 DBS와 CATV의 지역연계를 통해 채널의 다양화를 달성함으로써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33. 직접위성방송의 스페illo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중의 하나는 해당국가 스스로 직접위성방송을 발사하는 것이다.

## 직접위성방송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인식

34. 직접위성방송은 국민들의 시청범위와 시청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35. 직접위성방송 기술은 HDTV, PCM 방송 등의 뉴미디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36. 직접위성방송의 확충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여타 문화제작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37. 직접위성방송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자본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38. 직접위성방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독립제작사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9. 직접위성방송은 국가의 전자통신 및 여타 산업에 긍정적인 기술적 파급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가의 첨단산업개발에 도움을 준다.
40. 직접위성방송은 국가의 국제적 위신을 높이며 국가의 사회통합과 문화발전에 도움을 준다.
41. 직접위성방송은 수신료수입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광고료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직접위성방송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요구됨으로써 개별국가가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위성의 지역간 공동위성 개발 및 이용이 더욱 절실하다.